臺灣韓國學研究(대만한국학연구) 第3期(2026.03) 頁35-55
DOI:10.30199/TRKST.202603_(3).0003

대만의 한국 연구 경향 분석 -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李正珉*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만 교육부의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1960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국 관련 논문 1,023편을 대상으로 대만 내 한국 연구의 경향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1992년 한국과 대만 단교로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으나, 학계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교류와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분석 결과, 대만의 한국 연구는 크게 여명기(1960~1980), 맹아기(1981~1999), 발전기(2000~현재)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여명기는 연간 1~2편에 불과했으나 한국 연구의 기초를 다진 시기였으며, 맹아기에는 단교라는 악재 속에서도 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발전기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경제 성장, 콘텐츠 산업, 한류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주제별로는 상업 및 경영학, 사회행동과학, 인문학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졌다. 특히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을 위시한 한국의 경제 모델과 산업 발전, 그리고 드라마와 K-POP 등 한류 콘텐츠가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이는 대만에서의 한국 연구가 단순한 지역학적 관심을 넘어,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문화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실용적 목적에서 수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용적 관점의 연구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대만의 한국연구, 해외한국학, 한국연구 동향, 한류

1. 들어가며

1992년 한국의 대만 단교 선언은 양국 공식 관계의 종언을 고하는 사건이었다. 냉전기 반공이라는 공통의 이념 아래 밀착했던 양국 관계가 단절된 결정적 요인은 무엇보다 탈냉전기 한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한중수교였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의 요구는 확고했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실리를 추구하던 한국 정부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하나, 한

국-대만 관계의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오랜 원망을 낳았다. 단교 통보는 일방적이고 급박하게 이루어졌으며, 한국 정부는 1992년 8월 21일 대만 대사관 측에 72시간 내 철수를 요구했다.[20] 급작스러운 철수 과정에 이은 대사관 부지의 중국 양도 조치는 대만 사회에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겼다. 당시 형성된 배신감과 좌절은 시간의 흐름 속에 다소 희석되었으나, 여전히 대만인의 대(對)한국 인식 기저에 부정적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공식적인 외교 채널은 닫혔으나 민간 차원의 비공식적 연결마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화교 사회를 중심으로 한 혈연적 유대는 지속되었고, 홍콩 등을 경유한 우회적 통상 교류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혈연의 특성상 폐쇄적이거나 이윤 추구라는 제한적 범위 내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적' 혹은 '배신자'로 규정된 타자(他者)를 향해 학술적 관심을 지속해 온 대만 학계의 움직임이다.

과거 한국의 중문학 연구자들이 대만 유학을 통해 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단교는 이러한 인적 교류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국의 신진 학자들은 연구지를 중국 대륙으로 옮겼고, 대만을 선택하는 연구자는 급감했다. 반면, 대만의 소장 학자들은 외교적 갈등과 사회 전반의 반한(反韓) 정서 속에서도 한국을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이들이 견지했던 학문적 열정과 끈기는 오늘날 대만 내 한국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단교 이후 약 30여 년이 경과한 현재, 안타깝게도 양국은 긴 시간의 단절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공백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른바 '미싱 링크(Missing Link)'에 해당하는 지난 30여 년의 세월을 복원하기 위해, 대만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양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김윤태의 연구[21]가 키워드 분석의 방법론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학위를 보유한 학자들이 투고하는 정기간행물이 중심이기에 이른바 '학문후속세대'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방법론상으로는, KAKEN의 데이터를 활용한 陈月缘의 일본 내 한국학의 정량분석 연구[22]와 인용 분석을 통하여 미국 내 동아시

---

* 中國文化大學 韓國語文學系 助理教授

20) 월간조선(2022.8), "대만과의 斷交, 다시 부상하는 대만".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2208100031, 2025.12.16. 검색.

21) 김윤태(2021), 『중국과 대만의 한국학 지식 지형도 – 사회·문화 분야 학술 데이터 분석』, 한국학술정보, 146-181쪽.

22) 陈月缘(2021), 「日本学者对韩国课题的文献计量学分析」, 『社会科学前沿』, vol.10. no.4. https://doi.org/10.12677/ASS.2021.104134

아학의 연구 경향을 다룬 Li의 연구[23], 북미지역의 한국학 연구가 어떠한 배경에서 발전을 거두었으며 그것이 역으로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분석한 Kim의 연구[24] 등을 참조하였다. 물론 서지 정보와 통계에 기반한 분석이 심층적인 질적 이해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거시적인 연구 동향과 추이를 파악하여 그간의 학술적 궤적을 탐색하는 데에는 유효한 시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만 교육부의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인 '臺灣博碩士論文知識加值系統'[25]을 활용하였고, 2024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韓(한)"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논문 정보를 크롤링 및 가공,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논문명, 저자, 학문 분류(대/소), 지도교수, 소속 학교 및 학과, 학위 유형, 출판 연도 등을 포함하며,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논문은 총 1,023건이었다. 본고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학위자 분석

학위취득을 위한 대만 내 한국 관련 연구의 효시는 1960년 국립정치대학 신문연구소(한국의 신문방송학)에서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韓國新聞事業的傳統(한국 언론 사업의 전통)』이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1969년 국립대만사범대학 국문학계에서 발표된『十五世紀韓國字音與中國聲韻之關係(15세기 한국 자음과 중국 성운의 관계)』가 그 시작점이다. 한국에서 대만을 다룬 최초의 학위논문인 김경조(金璟祚)의『臺灣의 國際法上 地位』(1958)가 발표된 시점을 상기하면, 양국 간 상호 연구는 거의 동시대에 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한국 연구자는 약간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배출되었다. 연도별 학위 취득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석박사 학위취득자 수

구분	연도	석사	박사	구분	연도	석사	박사
여명기	1960	1	-		1994	10	1
	1961	-	-		1995	5	2
	1962	-	-		1996	2	2
	1963	-	-		1997	5	1
	1964	1	-		1998	6	2
	1965	-	-		1999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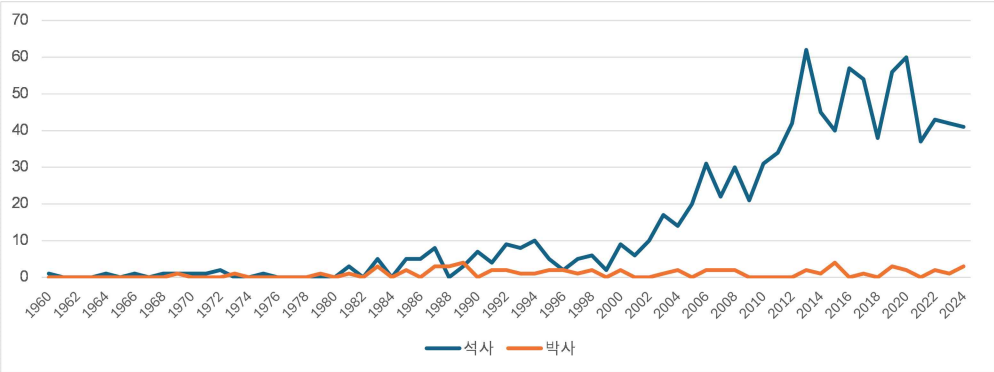
23) Li, Xiang(2019). Citing East Asia: A Citation Study on the Use of East Asian Materials in East Asian Studies Dissertatio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80, no.4.

24) Kim, Joy(2009). Purpose Driven Progres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1990-2009,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vol. 2009, no.149. https://scholarsarchive.byu.edu/jeal/vol2009/iss149/6

25) 臺灣博碩士論文知識加值系統, https://etds.ncl.edu.tw

구분	연도	석사	박사	구분	연도	석사	박사
	1966	1	–		2000	9	2
	1967	–	–		2001	6	–
	1968	1	–		2002	10	–
	1969	1	1		2003	17	1
	1970	1	–		2004	14	2
	1971	1	–		2005	20	–
	1972	2	–		2006	31	2
	1973	–	1		2007	22	2
	1974	–	–		2008	30	2
	1975	1	–		2009	21	–
	1976	–	–		2010	31	–
	1977	–	–	발	2011	34	–
	1978	–	–	전	2012	42	–
	1979	–	1	기	2013	62	2
	1980	–	–		2014	45	1
	1981	3	1		2015	40	4
	1982	–	–		2016	57	–
	1983	5	3		2017	54	1
	1984	–	–		2018	38	–
맹	1985	5	2		2019	56	3
	1986	5	–		2020	60	2
아	1987	8	3		2021	37	–
기	1988	–	3		2022	43	2
	1989	3	4		2023	42	1
	1990	7	–		2024	41	3
	1991	4	2		2025	제외*	
	1992	9	2	합계		959	62
	1993	8	1				

* 연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던 당시 2025년 졸업예정자의 논문은 2편으로, 추세 변동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제외하였다.



[그림 1] 연도별 석박사 학위취득자 수

〈표 1〉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4년 현재 대만에서 한국 관련 주제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는 석사 959명, 박사 62명으로 집계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계열적 흐름을 토대로 대만의 한국 연구 경향을 여명기(1960~1980), 맹아기(1981~1999), 발전기(2000~현재)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여명기의 연구 성과는 연간 1~2편 수준에 머물렀다. 수치상으로는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당시 대만의 대학원생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26]과 연구의 명맥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연구들은 후속 한국 연구가 성장할 수 있는 선도적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맹아기에 접어들며 연구 성과는 여명기에 비해 양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92년 한국-대만 단교라는 외교적 악재 속에서도 연구가 지속해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석사논문 집필에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단교 이후에도 한국 연구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은 학문적 관심과 의지가 외교적 상황에 종속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발전기는 한국에 대한 대만 내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정량적 지표로 입증하는 시기다. 1990년대까지 연간 10편 미만에 불과하던 논문 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의 배경과 요인은 후술할 주제별 분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된 주요 기관(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논문의 분량상 10건 미만은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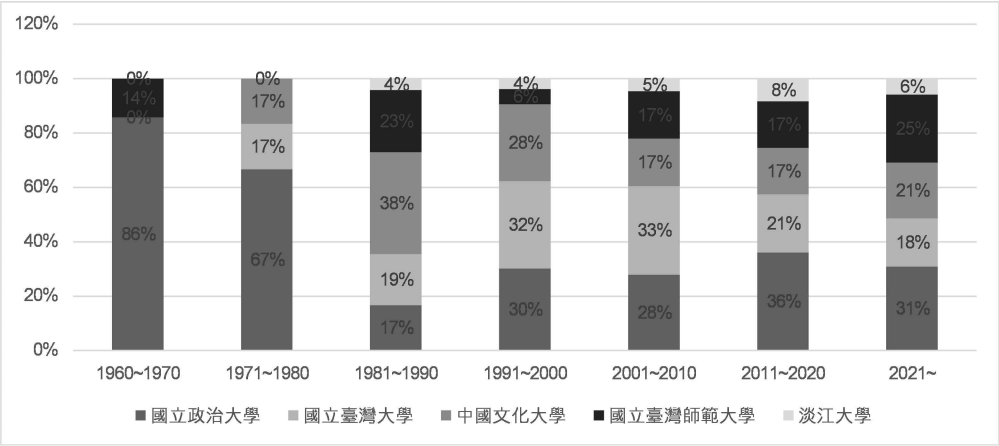
---

26) Hu에 따르면, 1972년 기준으로 대만의 대학 수는 9개에 불과했으며 등록률 또한 15% 수준이었다. 학부생 수가 그러하다면 대학원생 수는 그보다 더욱 적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2011년 시점에서 대학 수는 115개소로 늘어난다.
Hu, Tien Ling(2020). *The Schooled Society in Taiwa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and STEM+ Brain Drain or Brain Circul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Master's thesis, p. 8.

〈표 2〉 대학별 석박사 학위취득자 수

학교명	석사논문 수	박사논문 수	합계
國立政治大學	145	13	158
國立臺灣大學	103	10	113
中國文化大學	89	11	100
國立臺灣師範大學	73	11	84
淡江大學	30	–	30
東海大學	27	2	29
國立中山大學	24	2	26
國立中興大學	21	2	23
世新大學	21	–	21
國立中正大學	19	–	19
逢甲大學	19	–	19
東吳大學	18	1	19
輔仁大學	18	–	18
中原大學	17	–	17
銘傳大學	16	–	16
國立臺灣科技大學	14	1	15
國立成功大學	13	2	15
國立中央大學	12	1	13
國立交通大學	11	–	11
佛光大學	11	–	11
國立清華大學	10	1	11
亞洲大學	10	–	10
國立雲林科技大學	9	1	10

다수의 대학이 한국 연구자를 배출하였으나 특히 국립정치대학, 국립대만대학, 중국문화대학, 국립대만사범대학, 담강대학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일찍이 한국어문학과가 개설된 국립정치대학(1956년 설치)과 중국문화대학(1963년 설치)은 대만 내 한국 연구를 선도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국립대만대학, 국립대만사범대학, 담강대학은 한국어문학과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이 어문학적 탐구를 넘어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연구 대상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논문 출판 상위 5개교 출판비율 비교

[그림 2]는 시기별 각 대학의 연구 점유율 변화를 보여준다. 여명기(1960~1980)에는 국립정치대학이 대만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맹아기(1981~2000)에 들어서며 국립대만대학, 중국문화대학, 국립대만사범대학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등 다각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 연구가 특정 학과(한국어과)의 전유물을 벗어나 학계 전반으로 조금씩 확산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발전기(2001~현재)에 이르면 각 대학이 비교적 균등한 비율로 연구를 수행하는, 이른바 '한국 연구의 평준화' 현상이 관찰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한국학이 대만 내 여러 대학과 학문 분과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김윤태의 연구가 제시하는 학술지(정기간행물) 발간 추세와 학위논문의 추세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윤태의 연구는 1980년대부터 대만 학자들이 한국 연구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단교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았음을 증명한다.[27] 그러나 동시기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한류의 영향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한국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만의 미래세대의 한국 인식은 물론 한국에 대한 양적 관심도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 논문이 한국의 어떤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지, 주제별 분류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논문 유형별 분석

27) 김윤태, 앞의 책, 148-149쪽.

대만 교육부의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는 학문 영역을 총 21개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각 대분류는 다수의 하위 소분류를 포괄하며, 이는 개별 논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술적 맥락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한국과 대만의 학문 분류 체계에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먼저 대만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표 3〉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한국 관련 논문들이 속한 주요 분류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28]

〈표 3〉 대만의 학위논문 분류

대분류	소분류
建築及都市規劃學門 건축 및 도시계획학	建築學類(건축학), 景觀設計學類(조경설계학)
工程學門 공학	環境工程學類(환경공학), 電資工程學類(전기·전자공학), 材料工程學類(재료공학), 土木工程學類(토목공학), 工業工程學類(산업공학), 機械工程學類(기계공학)
教育學門 교육학	綜合教育學類(일반교육학), 專業科目教育學類(전문교과교육학), 普通科目教育學類(일반교과교육학), 教育行政學類(교육행정학), 成人教育學類(성인교육학), 教育測驗評量學類(교육평가 및 측정학), 其他教育學類(기타 교육학)
軍警國防安全學門 군사·경찰·국방 및 안전학	警政學類(경찰학)
農業科學學門 농업과학	農業經濟及推廣學類(농업경제 및 농업확장학), 園藝學類(원예학), 食品科學類(식품과학)
民生學門 생활과학	競技運動學類(체육 및 운동학), 觀光休閒學類(관광·레저학), 美容學類(미용학), 服飾學類(의류학), 生活應用科學學類(생활응용과학), 運動休閒及休閒管理學類(스포츠 및 레저경영학), 運動科技學類(운동과학), 餐旅服務學類(외식·호텔서비스학)
法律學門 법학	一般法律學類(일반법학), 專業法律學類(전문법학)
社會及行為科學學門 사회 및 행동과학	經濟學類(경제학), 公共行政學類(행정학), 區域研究學類(지역연구학), 國際事務學類(국제관계학), 民族學類(민족학), 社會學類(사회학), 心理學類(심리학), 政治學類(정치학), 綜合社會及行為科學學類(종합사회 및 행동과학), 地理學類(지리학)
社會服務學門 사회복지학	兒童保育學類(아동보육학), 社會工作學類(사회복지학)
商業及管理學門 상업 및 경영학	企業管理學類(경영학), 貿易學類(무역학), 醫管學類(의료경영학), 一般商業學類(일반상학), 財務金融學類(금융학), 財政學類(재정학), 風險管理學類(리스크관리학), 行銷與流通學類(마케팅 및 유통학), 會計學類(회계학), 其他商業及管理學類(기타 경영 및 경제학)
生命科學學門 생명과학	生物科技學類(생명공학)

28) 여타 여러 하위 분류가 있지만, 지면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연구에 해당하는 하위 분류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대분류	소분류
設計學門 디자인학	綜合設計學類(종합디자인학), 視覺傳達設計學類(시각디자인학), 其他設計學類(기타 디자인학)
數學及統計學門 수학 및 통계학	統計學類(통계학), 數學學類(수학)
藝術學門 예술학	美術工藝學類(미술공예학), 美術學類(미술학), 視覺藝術學類(시각예술학), 藝術行政學類(예술행정학), 音樂學類(음악학), 應用藝術學類(응용예술학), 綜合藝術學類(종합예술학), 戲劇舞蹈學類(연극 및 무용학)
運輸服務學門 교통 및 물류서비스학	運輸管理學類(교통경영학)
醫藥衛生學門 의약 및 보건학	藥學學類(약학), 營養學類(영양학), 公共衛生學類(공중보건학), 護理學類(간호학)
人文學門 인문학	歷史學類(역사학), 文獻學學類(문헌학), 翻譯學類(번역학), 外國語文學類(외국어문학), 人類學學類(인류학), 宗教學類(종교학), 中國語文學類(중국어문학), 哲學學類(철학), 台灣語文學類(대만어문학), 其他語文學類(기타 어문학), 其他人文學類(기타 인문학)
自然科學學門 자연과학	海洋科學學類(해양과학)
電算機學門 컴퓨터공학	電算機一般學類(일반 컴퓨터공학), 軟體發展學類(소프트웨어개발학)
傳播學門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학	廣告學類(광고학), 廣播電視學類(방송·영상학), 圖文傳播學類(출판·편집학), 圖書資訊檔案學類(도서정보학), 博物館學類(박물관학), 新聞學類(저널리즘), 一般大眾傳播學類(일반 커뮤니케이션학), 其他傳播及資訊學類(기타 언론 및 정보학)
其他學門 기타 학문	其他不能歸類之各學類(기타 분류되지 않는 학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모든 논문은 상기 분류표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전수 조사하여 각 학문 분야가 전체 한국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분야별 논문 수 및 비율

대분류	논문수	비율	대분류	논문수	비율
상업 및 경영학	318	31%	의약 및 보건학	8	1%
사회 및 행동과학	223	22%	건축 및 도시계획학	7	1%
인문학	185	18%	디자인학	5	0%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학	65	6%	수학 및 통계학	4	0%
교육학	62	6%	컴퓨터공학	4	0%
생활과학	47	5%	군사·경찰·국방 및 안전학	3	0%
예술학	34	3%	생명과학	1	0%
법학	21	2%	교통 및 물류서비스학	1	0%
공학	13	1%	자연과학	1	0%
농업과학	12	1%	기타 학문	1	0%
사회복지학	8	1%			

2024년 현재까지 한국 관련 연구는 21개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수행되었다. 그중 상업 및 경영학이 전체의 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대만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주로 경제와 산업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뒤를 이어 사회 및 행동과학(22%)이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정책, 정치, 사회학 등이 이 범주에 속함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의 작동 원리와 구조에 대한 대만 학계의 지적 호기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어문학과 역사학을 포함한 인문학(18%) 역시 꾸준한 연구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체 연구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이들 상위 3개 분야(상업 및 경영학, 사회 및 행동과학, 인문학)의 소분류를 중심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경향을 보다 상세히 규명하고자 한다(논문 수가 없는 연도는 제외).

〈표 5〉 경영학 소분류 시계열 논문 수

연도	경영학	금융학	기타 경영학	무역학	일반 상학	리스크 관리학	마케팅 및 유통학	재정학	의료 경영학	회계학
1987	1	–	–	–	–	–	–	–	–	–
1989	1	–	–	–	–	–	–	–	–	–
1991	–	–	–	1	–	–	–	–	–	–
1992	3	–	–	1	–	–	–	–	–	–
1993	1	–	–	–	–	1	–	–	–	–
1994	2	–	–	–	–	1	–	–	–	–
1995	1	–	–	–	–	–	–	–	–	–
1996	–	1	–	–	–	–	–	–	–	–
1997	2	–	–	–	1	–	–	–	–	–
1998	1	–	–	–	–	–	–	–	–	–
2000	2	–	1	–	–	–	–	–	–	–
2001	1	–	1	1	–	–	–	–	–	–
2002	2	2	–	–	–	–	–	–	–	–
2003	3	1	1	1	1	–	–	–	–	–
2004	1	–	–	2	1	–	–	–	–	–
2005	2	5	2	–	–	–	–	–	–	–
2006	5	4	3	–	1	–	–	–	–	–
2007	3	5	2	2	–	–	–	–	1	–
2008	9	2	2	–	–	–	–	–	–	–
2009	1	2	4	–	–	–	1	–	–	–
2010	2	2	1	1	–	1	–	–	–	–
2011	7	4	2	1	–	1	–	–	–	–
2012	5	4	6	3	–	–	–	–	–	–
2013	8	6	3	2	–	1	1	–	–	–
2014	9	4	4	2	–	–	–	–	–	–
2015	7	3	2	5	1	–	–	–	–	–
2016	9	1	4	–	2	–	1	1	–	–
2017	4	2	1	1	1	1	1	–	–	–

연도	경영학	금융학	기타 경영학	무역학	일반 상학	리스크 관리학	마케팅 및 유통학	재정학	의료 경영학	회계학
2018	9	2	1	–	–	–	–	1	–	1
2019	10	2	1	–	1	–	–	–	–	–
2020	9	1	3	3	–	–	–	–	–	–
2021	6	1	1	1	–	–	–	–	–	–
2022	10	3	2	–	–	–	1	2	–	–
2023	8	1	4	–	–	–	–	–	–	–
2024	4	2	4	–	–	–	1	–	–	–
합계	148	60	55	27	9	6	6	4	1	1
총계	317									

상업 및 경영학 분야 내에서 한국 연구는 경영학(148편), 금융학(60편), 기타 경영학(55편), 무역학(27편)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분석 대상은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과 제품 시장이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다루는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분야의 연구는 맹아기(1980~199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출판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이 대만 학계에 산업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발전기(2000년대~)에 이르러 연구량이 급증한 것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중국 시장 개척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점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전략과 마케팅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연구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표6〉 사회 및 행동과학 소분류 시계열 논문 수

연도	경제학	정치학	지역 연구학	종합사회 및 행동과학	사회학	국제 관계학	행정학	민족학	지리학	심리학
1972	–	1	–	–	–	–	–	–	–	–
1973	–	1	–	–	–	–	–	–	–	–
1981	2	–	1	–	–	–	–	–	–	–
1983	1	–	–	1	–	–	–	–	–	–
1985	–	2	–	–	–	–	–	–	–	–
1986	–	2	–	–	–	–	–	–	–	–
1987	–	2	–	–	–	1	–	–	–	–
1989	–	2	–	–	–	–	–	–	–	–
1990	–	1	1	–	–	–	–	–	–	1
1991	–	1	1	–	–	–	1	–	–	–
1992	1	–	1	–	–	–	–	–	–	–
1993	–	–	2	–	1	–	1	–	–	–
1994	–	2	–	–	1	–	–	–	–	–
1995	1	–	–	1	–	–	–	–	–	–
1998	1	1	–	–	2	–	–	–	–	–

연도	경제학	정치학	지역 연구학	종합사회 및 행동과학	사회학	국제 관계학	행정학	민족학	지리학	심리학
1999	1	–	1	–	–	–	–	–	–	–
2000	–	1	–	1	2	–	–	–	–	–
2001	1	–	1	–	–	–	–	–	–	–
2002	1	–	–	–	–	–	–	–	–	–
2003	1	–	–	1	1	–	–	–	–	–
2004	1	1	1	2	–	–	–	–	1	–
2005	2	1	–	–	–	–	1	–	–	–
2006	6	–	–	2	2	–	–	–	–	–
2007	–	2	1	–	1	–	–	–	–	–
2008	3	1	–	2	–	–	1	1	–	–
2009	2	–	–	–	1	–	–	–	–	–
2010	4	1	–	2	1	–	–	–	–	–
2011	1	1	3	–	–	2	–	–	–	–
2012	3	3	–	1	1	–	–	–	–	–
2013	5	3	–	1	–	2	1	–	1	–
2014	2	2	1	3	1	2	–	–	1	–
2015	1	–	2	1	–	1	–	–	1	–
2016	2	1	1	1	–	–	1	–	–	–
2017	1	7	4	–	–	2	2	2	–	1
2018	2	–	3	1	1	2	–	–	–	–
2019	–	1	–	2	2	1	1	1	–	–
2020	4	2	4	1	1	1	–	–	–	–
2021	–	1	2	2	1	–	1	–	–	–
2022	2	1	1	2	–	–	–	–	–	–
2023	2	–	1	–	2	1	1	–	–	1
2024	–	3	4	1	–	1	–	–	–	–
합계	53	47	36	28	21	16	11	4	4	3
총계	223									

사회 및 행동과학 분야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관찰된다. 다만 상업 및 경영학이 개별 기업의 미시적 경영 사례에 집중했다면, 이 분야는 정부 정책, 시장 구조, 정치 체제 등을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논의의 지리적 범위가 한국과 대만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이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대만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비교 연구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했음을 암시한다. 특히 1992년 단교 이후 이러한 다자간 비교 연구 경향이 강화된 것은, 국제적 고립 심화 속에서 생존과 발전의 활로를 모색했던 대만의 절박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산업 및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졌다.[29)]

다음은 인문학 소분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7〉 인문학 소분류 시계열 논문 수

연도	외국 어문학	중국 어문학	역사학	대만 어문학	기타 어문학	종교학	기타 어문학	인류학	철학	문헌학	번역학
1969	–	1	–	–	–	–	–	–	–	–	–
1971	–	1	–	–	–	–	–	–	–	–	–
1979	–	–	1	–	–	–	–	–	–	–	–
1983	–	2	1	–	–	–	–	–	1	–	–
1985	–	2	2	–	–	–	–	–	–	–	–
1986	–	1	1	–	–	–	–	–	–	–	–
1987	–	2	1	–	–	–	–	–	–	–	–
1988	–	1	1	–	–	–	–	–	–	–	–
1989	–	1	1	–	–	–	–	–	–	–	–
1991	–	1	–	–	–	–	–	–	–	–	–
1992	–	2	–	–	–	–	–	–	–	–	–
1993	–	1	1	–	–	–	–	–	–	–	–
1994	–	1	–	–	–	–	–	–	–	–	–
1996	–	2	–	–	–	–	–	–	1	–	–
1997	–	–	1	–	–	–	–	–	–	–	–
1998	–	1	–	–	–	–	–	–	–	–	–
2000	–	1	1	–	–	–	–	–	–	–	–
2002	1	–	–	–	–	–	–	–	–	–	–
2003	1	2	–	–	–	–	–	–	–	–	–
2004	–	1	–	–	–	–	–	–	–	–	–
2005	–	3	–	–	–	–	–	–	–	–	–
2007	1	1	–	–	–	–	–	–	–	–	–
2008	4	2	–	–	–	–	–	–	–	–	–
2009	3	–	–	1	–	–	–	1	–	–	–
2010	1	2	–	–	–	–	–	–	–	–	–
2011	2	2	1	–	1	–	–	–	–	–	–
2012	2	2	–	1	–	–	–	–	–	–	–
2013	3	8	–	–	–	–	–	–	–	–	–
2014	2	2	1	–	–	–	–	–	–	–	–
2015	5	4	–	–	1	1	–	–	–	–	–
2016	6	6	–	1	–	–	–	–	–	1	–
2017	5	2	–	1	–	1	–	–	–	–	–
2018	4	–	–	–	–	–	–	–	–	–	–
2019	7	1	–	1	2	–	1	1	–	–	–
2020	9	3	1	1	–	–	1	–	–	–	–
2021	5	1	–	1	–	–	–	–	–	–	–
2022	3	7	–	1	–	–	–	–	–	–	–
2023	3	2	–	–	–	–	1	–	–	–	–
2024	6	1	–	–	1	2	–	–	–	–	1
합계	73	72	14	8	5	4	3	2	2	1	1
총계	185										

29) 한국 소프트파워의 사례 연구는 통상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학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인문학 분야의 연구는 외국어문학(73편)과 중국어문학(72편)이 양대 축을 이루며, 대부분 어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특기할 점은 한국어 자체에 대한 내재적 연구보다는 중국어(혹은 대만어)와의 대조 분석을 통한 비교언어학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대만 내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의 학위논문이 다수 배출되었음을 시사한다.

연구 주제의 변천사 또한 흥미롭다. 초기에는 고전문학 연구가 일정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0년대를 기점으로 현대문학, 영화, 뮤지컬 등 동시대 콘텐츠 연구가 전면화되었다. 특히 2017년 이후 고전소설 연구는 거의 자취를 감춘 반면, 한국의 최신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급증했다. 이는 젊은 대만 연구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동시대적이고 트렌디한 문화 소비 대상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할 때, 대만의 한국 연구는 철저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다고 규정할 수 있다. 경영학은 물론 사회학과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연구는 한국의 산업 발전과 시장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대만에 적용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례 연구' 방법론의 압도적 우위는 '한국의 성공 모델을 어떻게 대만에서 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술적 응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학문의 본령인 '비판적 성찰' 기능이 한국 연구라는 영역 내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발전기의 연구들에서 한국은 종종 이상적인 모델로 상정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한국의 구조적 모순이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드물다. 요컨대, 대만 미래 세대의 한국 연구는 긍정적 현상의 이면을 들추어내거나 잠재적 위험을 전경화하기보다 가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독해하는 데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교 시절의 적대감을 넘어 한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각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호감의 근거가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는 '암점화(Blind Spotting)'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인으로서는 이러한 긍정적 관심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학술적으로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4. 키워드 분석

이 장에서는 수집된 학위논문의 국문 초록(Abstract)에서 핵심어(Keywords)를 추출하여, 대만의 학위논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크게 연구의 관계적 배경이 되는 국가, 주요 연구 대상인 인물과 기업, 그리고 문화적 현상인 한류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대만 학계가 한국을

논의할 때, 어떠한 국가를 관계적 대상으로 상정하는지 분석하였다. 시기별 주요 언급 국가는 다음 〈표 8〉과 같다.[30]

〈표 8〉 시기별 주요 언급 국가

순위	국가	여명기	맹아기	발전기	합계
1	대만	0	25	535	560
2	중국	4	48	200	252
3	일본	3	30	190	223
4	미국	1	10	113	124
5	조선	3	14	36	53
6	북한	1	11	18	30
7	베트남			18	18

분석 결과, 전체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는 '대만(560회)'으로 나타났다.[31] 이는 발전기(2000~현재)에 들어서며 한국을 단독으로 연구하기보다 자국인 대만과의 비교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대만을 제외한 외부 대상국 중에서는 여전히 '중국(252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대만의 한국 연구가 '중국'이라는 거시적 변수나 역학 관계를 전제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어 일본(223회)과 미국(124회)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는데, 이는 대만인의 지정학적 인식이 대만-중국-한국-일본-미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체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특기할 만한 점은 '베트남(18회)'의 등장이다. 비록 순위는 낮지만, 이는 한국 연구의 지평이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시아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록에 언급된 인물 키워드를 통해, 한국이 어떠한 인물군으로 표상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9〉 시기별 주요 언급 인물

30) 1개 논문에서 국가가 복수로 언급될 경우 통합하지 않고 각각 정리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대조군의 상수이기에 제외하였다.

31) 다만 여명기의 경우 대만이 자신의 호칭을 종종 '중국中國'이라고 불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키워드를 정제할 때 '중화민국中華民國'은 '대만'으로 통일하였다.

순위	인물	여명기	맹아기	발전기	합계
1	김대중	0	0	11	11
2	박근혜	0	0	11	11
3	이명박	0	0	10	10
4	공자	0	1	7	8
5	박정희	1	1	5	7
6	노무현	0	0	7	7
7	세종	0	3	4	7
8	문재인	0	0	6	6

여명기와 맹아기에는 박정희 등 일부 현대 정치인과 세종, 공자 등 전통적 인물이 소수 언급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발전기에 접어들며 김대중(11회), 박근혜(11회), 이명박(10회) 등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상위권을 휩쓰는 변화가 나타났다. 노무현(7회), 문재인(6회) 역시 순위권에 포진하여, 대만의 한국 연구 중심축이 '역사와 전통'에서 '현대 정치와 리더십'으로 이동했음을 방증한다. 특히 기업인이나 대중문화 예술인보다 국가 지도자가 주로 호명된다는 사실은, 대만인들에게 한국이라는 국가가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표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공자(8회)'가 4위를 기록하고 '세종(7회)'이 꾸준히 언급되는 등 전통적 인물에 대한 연구 수요도 지속되고 있어, 한국 연구가 '현대 정치 분석'과 '전통 유교 문화 탐구'라는 두 가지의 비대칭적 흐름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앞서 대만의 한국 연구가 실용적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한 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연구 대상이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10〉 시기별 주요 언급 기업

순위	기업	여명기	맹아기	발전기	합계
1	삼성	0	3	29	32
2	현대	0	0	12	12
3	SK	0	0	6	6
4	애플	0	0	6	6
5	LG	0	1	3	4
6	롯데	0	0	3	3

한국 기업에 대한 연구는 맹아기에 태동하여 발전기에 급증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삼성(32회)'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다. 삼성은 2위인 '현대(12회)'를 큰 차이로 따돌리며 대만인들이 벤치마킹하거나 경쟁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한국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기업인 '애플(6회)'이 4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경쟁 구

도를 분석하거나 삼성의 스마트폰 전략을 애플과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삼성과 현대, SK, LG 등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유통 기업인 롯데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대만 역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로서, 한국 제조 대기업의 성공 전략과 혁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는 실용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한류'가 한국 연구에 미친 영향과 그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한류' 관련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여명기	맹아기	발전기	합계
1	드라마	0	0	80	80
2	K-POP	0	0	59	59
3	영화	0	1	51	52
4	콘텐츠	0	0	46	46
5	아이돌	0	0	46	46
6	웹툰	0	0	6	6
7	유튜브	0	0	2	2

한류 관련 키워드는 발전기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장르별로는 '드라마(80회)'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K-POP(59회)'과 '영화(52회)'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이돌(46회)'이 '콘텐츠(46회)'와 동일한 빈도로 언급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K-POP 연구가 음악 장르를 넘어 아이돌 팬덤 문화와 스타 시스템은 물론 연예계 외부를 지속적으로 참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웹툰(6회)'과 '유튜브(2회)'가 새로운 연구 키워드로 등장하며 플랫폼의 변화에 따른 연구 주제의 다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의 흐름은 한류를 단순한 문화적 향유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라는 산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려는 대만 학계의 시각을 보여준다. 다만, 앞서 논했듯이 한국의 문화적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까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서는 추후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대만 교육부의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서지 정보를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만 내 한국 연구의 전개 양상과 흐름을 양적 방법론을 통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주체(대학 및 학과)를 규명하였으며, 시계열적 추이에 따라 그 흐름을 여명기(1960~1980), 맹아기(1981~1999), 발전

기(2000~현재)의 3단계로 유형화하여 각 시기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단연 '실용주의(Pragmatism)'로 요약된다. 전체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상업 및 경영학, 그리고 콘텐츠 산업 연구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산업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보여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관찰되는 다자간 비교 연구 역시 대만의 국제적 고립과 지정학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인문학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순수 이론 탐구보다는 한국어와 중국어(대만어)의 대조 분석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점은, 한국 연구가 철저히 '효용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성을 대만 학계 전체의 보편적 특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만큼은 '실용성'이 가장 강력한 연구 동인이자 잣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성취를 분석하여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 '실용적 관점'이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연구 대상으로서 한국을 '이상화(Idealization)'하는 것이다. (성공) 사례 연구의 본질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이러한 경향은, 한류의 "감각"[32]적 쾌감과 자본 추구의 극대화와 맞물리면서 연구 대상과 그것이 탄생한 물질적, 비물질적 조건까지 미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물론 대만 대학 내의 본격적인 한국 연구를 격발시킨 한류가 일종의 영미 대중문화의 "제국주의적 함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관점도 있긴 하지만[33], 그럴수록 '우리(공동체)-적(제국)'의 관계 속에서 인식론적 편향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한 관점에서, 비판적 학문으로서의 한국 연구 혹은 한국학을 강조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한국학을 하는 이에게 던져진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2) 김성민(2018), 『케이팝의 작은 역사』, 글항아리, ebook.

33) Hong, Soonkwan, and Chang-Ho Kim(2013). Surfing the Korean Wave: A Postcolonial Critique of the Mythologized Middlebrow Consumer Culture in Asia, *Qualitative Market Research: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6, no. 1, 2013. https://doi.org/10.1108/13522751311289767

참고문헌

김윤태(2021),『중국과 대만의 한국학 지식 지형도 - 사회·문화 분야 학술 데이터 분석』, 한국학술정보.

김성민(2018),『케이팝의 작은 역사』, 글항아리, ebook.

陈月缘(2021)，「日本学者对韩国课题的文献计量学分析」，『社会科学前沿』，vol.10，no.4。

Hong, Soonkwan, and Chang-Ho Kim(2013). Surfing the Korean Wave: A Postcolonial Critique of the Mythologized Middlebrow Consumer Culture in Asia, *Qualitative Market Research: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6, no. 1.

Hu, Tien Ling(2020). The Schooled Society in Taiwa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and STEM+ Brain Drain or Brain Circul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Master's thesis.

Kim, Joy(2009). Purpose Driven Progres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1990-2009,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vol. 2009, no.149.

Li, Xiang(2019). Citing East Asia: A Citation Study on the Use of East Asian Materials in East Asian Studies Dissertatio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80, no.4.

臺灣博碩士論文知識加值系統. https://etds.ncl.edu.tw

월간조선. https://monthly.chosun.com

ABSTRACT

Trends in Korean Studies in Taiwan:
A Quantitative Analysis of Graduate Theses and Dissertations (1960–Present)

Jungmin, LEE

This study provid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trends in Korean Studies in Taiwan, focusing on graduate theses and dissertations. Although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were severed in 1992, non-governmental academic exchanges have persisted. Notably, Taiwanese academia has maintained a consistent interest in Korea as a subject of research. To analyze these trends, this study examines 1,023 theses and dissertations related to Korea, sourced from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of Taiwan's database, covering the period from 1960 to 2023.

Korean Studies in Taiwa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distinct periods: the nascent phase (1960–1980), the formative phase (1981–1999), and the developmental phase (2000–present). The nascent phase, characterized by the early stages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saw limited output with only one or two theses published annually; nevertheless, this era laid the foundational framework for future research. During the formative phase, the volume of research gradually increased, sustaining momentum even amidst the diplomatic rupture in 1992. The developmental phase witnessed an exponential surge in interest, driven primarily by Korea's economic growth, content industry, and the Korean Wave (Hallyu, 한류).

Chronological analysis reveals that research has been predominantly concentrated in the fields of Business and Management,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Scholarship was not confined to Korean language departments but expanded across diverse academic disciplines. Specifically, the Korean economic model, industrial development, and cultural content emerged as primary areas of interest. Corporate studies focused heavily on major conglomerates (chaebols, 재벌) such as Samsung, Hyundai, and LG, while research on the Korean Wave diversified into areas including K-dramas, popular music, and idol fandoms.

Th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Studies in Taiwan has been underpinned by a

pragmatic perspective, interpreting Korea's economic and cultural trajectories as models for benchmarking. Despite the absence of formal diplomatic ties, Korea remains a significant subject of inquiry for Taiwanese scholars, a trend that is proj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Keywords: Korean Studies in Taiwan, Overseas Korean Studies,
Trends in Korean Studies, Korean Wave (hallyu)